

본대로 들은대로

日本 C.T.S를 보고

科總會長 金 允 基

C.T.S란 Central Terminal System의 약자(略字)로서 중요물자를 비축하는 기지(基地)를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원유(原油)라든가 철광석(鐵鑛石)이라든가 원목(原木)같은 것을 원산지(原產地)에서 초대형(超大型) 선박 30만톤 D.W.T 또는 50만톤 D.M.T로 기지까지 대량 수송하여 비축(備蓄)하여 두었다가 제유소(製油所) 또는 제철소(製鐵所)나 제재소(製材所)까지 중계수송(中繼輸送)한다. 그럼으로써 수송비를 절감하게 되고 공급에 안전을 기할 수 있다.

이런 이점(利點)에서 선진국에서는 이 C.T.S를 만든지 오래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C.T.S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우선 가까운 일본 규슈(九州)와 가고시마(鹿兒島)의 원유기지를 본인이, 그리고 오끼나와를 김동일(金東一) 박사께서 알아 보고 왔다.

오끼나와는 5월 15일에 미국으로 부터 일본에 반환되었으나 C.T.S의 운영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한다.

나는 신일본제철(新日本製鐵)에서 새로 건설하여 4월초에 가동(稼動)하기 시작한 오이다 제철소(大分製鐵所)의 Sea Bath을 주로 보고 왔다.

30톤 D.W.T의 광석(鑛石) TANKER 3척이 동시에 접안(接岸)하게 되어 있었다. 가고시마의 C.T.S나 오이다제철소를 보고 놀란것은 소위 공해방지를 위해 건설 당시 이에 대한 조치가 되어 있어서 기름한방울이나 오수(汚水)한방울이 바다에 떨어지지 않게 되어있고 오이다제철소의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게 되어 있었다.

뿐만아니라 오이다제철소 주위에는 공장 자체에서 그린벨트(Green Belt)를 만들어 식물을 해 놓고 있었으며 이를 기업인측에서 무척 자랑하고 있었다.

후쿠오카(福岡)에서 면식(面識)있는 일본 사람을 만나 안내를 받아 철근의 가스압접(瓦斯壓接)을 하는 현장을 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빨리 시도해야 되겠다고 느꼈다.

이공법은 강재(鋼材)가 절약되고 비용도 절약된다. 간단한 설비로 할 수 있는 것이니 기술을 습득하고 양심적으로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싶었다.

5일간의 여행에서 재미있는 일도 있었고 공부도 됐다. 다음 기회에 더 재미있었던 일을 소개할까 한다.

> 隨 筆 <

生命의 푸른 빛을

辛 萬 教

오늘날 우리는 科學技術의 놀라운 發展 속에서 살고 있다. 科學技術의 힘을 생각치 않고는 現代文明과 現代人의 意識과 行動方向을 理解할 수 없을 程度이다.

「콤퓨터」 情報革命, 交通通信革命, 電子機器 工場의 「오오토메이손」化, 人造合成纖維, 石油化學, 原子力, 「로켓트」核武器 宇宙開發等 생각하기에도 어지러운 變化와 發展이 展開되고 있다.

이러한 現代科學技術의 進歩를 생각할 때 어딘지 차거운 灰色의 金屬성과 人工의 非情함을 느끼게 함은 웬 일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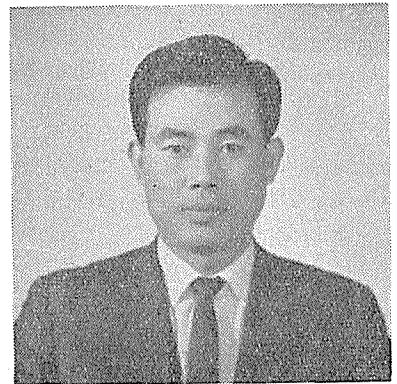
自然과 生命의 색깔은 푸른빛으로 充滿하다. 마치 創世紀의 하늘의 푸름과 해와 달의 빛남, 그리고 부드러운 大地에 充滿한 生命力을 간직한 詩人과 藝術家 그리고 哲學者, 宗教人에 끝없는 계

시와 영감의 神秘를 부여하는 生命의 寶庫같은 생각을 갖게 한다.

그때 우리는 삶에 對한 感謝와 尊敬 人間相互間의 따뜻한 紐帶 自然에 對한 畏敬을 느끼게하고 來日을 向하여 살아가는 오늘의 生活에 感謝와 보람으로 가득할 수 있으리라.

近代科學의 開拓期인 「갈릴레오」가 望遠鏡을 만들어 별을 관측할 때의 科學技術은 自然에 對한 도견이 아니라 自然의 神秘에 對한 無限한 畏敬속에 경건한 求道者의 心境으로 眞理探究의 길을 조용히 갔으리라.

「뉴턴」의 偉大한 法則을 거쳐 科學의 結實은 技術로 應用되고 産業革命을 契機로 技術의 威力은 여지없이 發揮된 것이 아닌가.



새로운 紡織機의 發明, 蒸氣力의 利用 石炭과 鐵의 急激한 使用增大, 交通手段의 劃期的인 發展 機械의 普編化等 近代科學技術文明은 西歐에서 씩터 漸次 全地球上으로 물결쳐 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人類은 物質文明과 科學文明의 發展에 無限한 希望을 걸고 人類의 來日을 樂觀하면서 18, 9世紀의 樂天的이고 肯定的인 哲學속에 地上의 樂園을 꿈꾸어 왔었다.

圓舞

曙岡



그러나 工場과 機械는 牧歌的인 田園을 蠶食하였고 푸른 草園은 殺伐한 炭礦의 검은 연기로 바뀌어 갔다.

高度의 科學技術을 利用한 大量 살육무기는 두번에 걸친 世界大戰의 참화에서 그 잔혹성을 더욱 뚜렷이 하였고 戰後의 젊은이들은 價値觀과 道德律을 상실하고 不信과 不安속에 거리를 방황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것이 科學技術의 發展에 연유함은 勿論 아니다. 그러나 工業化, 機械化, 都市化는 人間疎外現象을 더욱 깊게하고 生命과 自然의 푸름에 對한 憧憬을 漸次 희미하게 한 原因의 하나임을 否認할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처럼 喪失된 人間性의 回復이 절실히 要請될 때는 없을 것이다. 모든 價値가 顛倒되고 學問도 藝術도 宗教도 價値의 軌道에서 離脫되고 혼란과 不우성에 物質萬能 찰라주의의 思考는 漫연되어 가다가 보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科學技術의 發展을 위하여 다 같이 努力하고 있다. 科學技術이 振興되어야 알찬 工業化가 이룩될 수 있고 오랜 歷史의 停滯에서 脫皮하여 밝은 近代化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科學技術의 荒蕪地위에서 우리는 科學의 싹을 기르고 技術의 열매를 소중히 가꾸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生命의 푸른빛을 科學技術속에”라는 말을 하고 싶다. 새로 開拓하여 가는 우리 科學技術의 길위에 人類愛와 生命尊敬의 따스함이 가득하고 自然에 對한 挑戰이 아닌 自然에 對한 親和感이 넘쳐 흐르기를 바라고 싶다. 科學技術의 開發 精神能率과 便宜 爲主에서 自然, 生命, 人間性의 尊重이라는 方向으로 나아갈때 우리의 科學技術은 우리뿐만 아니라 全人類의 平和增進과 福祉增大의 方向으로 發展하여 가리라 생각된다.

都市計劃, 하나의 작은 設計에도 따스한 휴머니티의 精神은 스며들수 있을 것이다. 綠色革命으로 메마른 江山을 푸르게 하고 公害의 追放과 對策, 自然環境의 保存, 疾病의 退治, 環境을 더럽히지 않을 工場의 設計와 建設等 따스한 휴머니티에 가득찬 科學技術의 길은 많을 것이다.

科學技術振興의 時急性和 重要性을 切感하면서도 그것이 惹起할수도 있을 어두운 副産物에 對한 警戒심으로 너무 科學技術의 非情한 面만을 露出し시켰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確實히 人類의 來日은 科學技術의 進歩에 많은 期待와 希望을 걸고있음은 否認치 못할 것이다.

아직 우리의 科學과 技術은 幼年期에 있지만 發展의 潛在力은 無限하다. 金屬性의 非情속에 흐뭇한 휴머니티가 스며있는 祝福에 찬 科學技術을 이땅에 꽃피우기를 비는마음 간절하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이어온 우리들의
노래는

都市의 소란을
멀리하고
榮光의 獻辭를
외면한채

차거운 겨울
가난한 죽음위에
조용히
떨치운다

그리곤 荒涼한 묘지의
枯木과 夕陽의 까마귀 울음에
귀 기울이고
연민의 작별을 고향다

겨울의 저쪽
물결쳐 오는
봄의 숨결을 향해

우리들의 노래는
먼 旅行을 떠나고
춤추는 아가들을
祝福한다

그리곤
光輝를 안고
찾아올 여름과 함께
푸른 들 울려퍼지는
습음을 하리라

끝없는 춤속에
가을의 떨리움이
깊어지면

平安의 감사로서
大地에 입맞추리